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I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23. 2. 2.(목) 11:00
- 장 소 :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지하1층)
- 참 석 : 위원 9명 중 7명 참석
- 주요내용 : 농수산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

출 장 명	참가자	출장기간 (방문국)	비고 (예산부담)
농수산위원회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농수산위원회위원회 위원 11명	2.20. ~ 2.28. (두바이, 네덜란드, 프랑스)	도의회
교육위원회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교육위원회 위원 11명	2.18. ~ 2.26. (스페인, 포르투갈)	도의회

II 심사결과

1. 농수산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 출석위원 7명중 가결 7명
2.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 출석위원 7명중 가결 7명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 **간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소개)

참고로 ○○○ 위원님은 시모상으로, 그리고 ○○○ 위원님은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참석위원 소개를 마치고 ○○○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기묘년 새해에 첫 번째 심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회의자료 중에 보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서만 저희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사실은 다녀와서 보고되는 내용들이 정책에, 조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을 또 확인하면 좋겠다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개조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PPT자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자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하는 염려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위원님들 나갈 때에 각 개인별 임무를 좀 분담을 해서 적어달라, 그래서 위원님들 열한 분이 가거나 아홉 분이 가거나 할 때 그래도 평소에 관련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으실 텐데 그 분야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아니면 그렇게라도 관심의 주제가 정해지면 나가서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인 연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요구가 괜히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귀찮게만 해드리는 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이 자료에도 늘 나왔다고 피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나가시는데 효과를 높이는 게 위원님들이나 심사를 하는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심사를 할 때마다 늘 두 가지를 마음에 두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온고지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때로는 송구영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온고지신은 기왕에 진행되던 바탕위에 좀더 좋은 점들을 더해서 개선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또 해마다 연말연시에 하는 송구영신은 개선의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서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다 두 가지 소원을 마음에 담고 심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모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계획 심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2개의 상임위원회의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입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가 2월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열한 분의 의원이 두바이, 네덜란드, 프
랑스를 방문하고, 교육위원회는 2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열한 분의 의원이 스페인, 포
르투갈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출장계획이 2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출장계획 2건을 일괄 보고받은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
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순으로 나오셔서 출장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오늘 농수산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장계획 보고)

◇ **위원장** ○○○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안녕하십니까? 교육수석전문위원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장계획 보고)

◇ **위원장** ○○○ 두 위원회의 출장계획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의 출장계획에 대한 질의를 농수산위원회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난 뒤에 정리가 되고나면 다시 교육위원회 순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농수산위원회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수집을 한다,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는데, 출장을 갈 때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서 갑니까, 아니면 그냥 출장계획서만 들고 나갑니까?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별도 자료집을 소책자로 준비합니다.

◇ **위원장** ○○○ 별도로 관련한 책자로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나요? 예를 들면 갈 때 자료집을 가지고 가고,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2018년도 농수산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이것은 요약본인가요, 아니면 이것 자체가 결과보고서로 보고가 된 건가요?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18년 출장결과보고서 양식이 PPT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봤는데, 결국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그게 최종 결과보고서를 판단됩니다. 원칙은 출장결과보고 형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식에 맞추어서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가능하면 하나의 자료들이 모이면 이게 하나의 다음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초·중등학교, 대학에서도 답사를 가면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 자료집의 내용이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가서 얻어오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되기는 되어 있는데 과연 2018년 농수산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제가 먼저 양측 위원회에 거의 유사한 질문 및 제안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마지막에 보면 ‘정책제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빅데이터 관련 관리전담부서 신설, 어린이승마전문센터 건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도 보면 어떤 제도의 도입검토, 연구 활성화, 이런 데에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출장을 갔다와서 금방 안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출장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해서 입법화 했는, 예를 들면 입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예.

◇ ○○○ **위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다음 위원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질문 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출장을 가면 좀더 효과적일 것이다. 맞춤형 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상황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가보면 비교분석하기가 나을 겁니다. 아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상당한 견학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우리 지역의 기관에 대한 상황도 제안을 하면서 비교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까 책자를 만들어서 간다 하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좀더 명시를 해서 그것을 메모를 해서 가지고 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계획서에나. 그러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교육위보다 기록이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아까 발표내용에 의하면 어떤 내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서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발표와 계획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보면 아는데, 계획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구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페이지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아까 발표하신 내용들을 계획서에 작성을 하시고, 굳이 3페이지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1페이지의 출장자하고 출장경비 이것을 전부 똑같이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굳이 2페이지에 걸쳐서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2018년도 그때만 해도 이 심사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 또는 부위원장님이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오셔서 도움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앞장서서 하시는 위원님들의 대표되시는 분이 이 상황을 좀더 인지를 하고 가신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담당하시는 전문위원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고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을 다음에 바쁘시지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전에처럼 한번 나와서 심사할 때 듣고 가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 **위원장** ○○○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릴까 했는데 마침 한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고, 정 일정이 바쁘시면 다른 도의원님 중에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해서 관련한 심사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번 심사 때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출장효과면 여기에도 구체적인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방문을 해서 어떤 입법을 한번 시도를 하겠다, 또는 어떤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입법을 우리가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가서 실질적인 결과가 명쾌하게 계획서에 기록이 되고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냥 출장효과나 목적에는 좋은 말은 죽 나열되어 있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없으니까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예, 다음 위원님 질문... 예, ○○○ 위원님.

◇ ○○○ **위원** 저는 전공이 농업정책이라서 농수산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축산유통국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핵심키워드가 딱 2개 있습니다. 그 2개가 뭐냐 하면 '첨단'하고 '힐링'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네덜란드 출장은 아마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네덜란드와 우리가 하고 있는 상주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마 비교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에 보면 농업테크노파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월24일 일정에도 보면 전시홍보, 교육연구, 정부정책 연계 플랫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빠진 내용은 ‘힐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도농정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쪽에 가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예를 들면 힐링은 내용은 조금 아시겠지만 치유농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돌봄, 반려식물,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도정책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는 내용하고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를 저도 오기 전에 대충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금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보고 나니 내용들이 도정에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은 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보고가 다 그러한데요. 어떤 시사점이나 제언 같은 것은 있습니다. 도정이고 도의회니까 그런 보신 내용들이 도정에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 이 보고서를 다른 분들도 볼 텐데,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도정에 연결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한두 쪽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면 보고서로서 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나중에 좀 반영을 해서 다음 번 심사위원회 때는 그 전에 가능한 자료들을 제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연임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출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좀 진전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언론에 몸담고 있다 보니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보도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 ○○○ **위원** 여기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데 행정적으로 섭외는 다 완료되었는지요?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거의 다 완료되었고요, 아직 진행 중인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만, 이번주면 다 완료가 됩니다.

◇ ○○○ **위원** 계획서 상에는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서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저도 생각에 아까 앞에서 하신 위원님들 말씀처럼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이런 것을 만들려고 수고는 했지만 마무리가 조금 덜 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들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로 끝내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입법이 되거나 시책에 반영이 됐다면 그런 것들을 자료로 남긴다면 아마 연수가 훨씬 효율적인 연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개 위원회가 그때 갔다와서 실제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거나 교육청에 반영이 된 일들이 있는지, 담당자가 바뀌셨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분명히 뭔가는 있었지 싶은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씩 더듬어서 확인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저희들 농업분야는 금년에 프랑스는 저희들이 농식품박람회엑스포를 관함하는 겁니다만, 2018년도에 프랑스 마사회를 방문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그 당시 영천에 말산업 경마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왔는 결과를 가지고 말산업 6차 산업, 그 당시에 벤치마킹을 했는 게 농업 6차산업도 있지만 말산업 6차산업이라고 해서 복합교육, 정신치유, 장애인 치료 이 3가지를 묶어 가지고 어린이승마전문센터 건립을 벤치마킹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6개 시군에 유소년승마단 창단사업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22억의 사업비로 16개 시군에 학생승마체험사업을 그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프랑스에는 아예 어린이승마전문센터가 건립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일부 활용한 사례를 보고드렸습니다.

◇ ○○○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중복되는 어떤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양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리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예.

◇ **위원장** ○○○ 위원님들의 말씀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나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농수산위원회의 출장계획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 교육제도라는 게 유사 유럽식 일제의 교육 잔재가 시스템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해방이후에는 사실 미국식 교육제도가 거의 시스템을 다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보면 유독 굉장히 다양한 국가를 나가서 다양한 사례를 체험을 하거나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이런 유사한 과제 때문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지만 과연 교육과 관련한 우수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농수산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조사, 조사’ 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놓은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된 내용에 근거해서 가서 어떤 부분만 보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각자마다 입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위원장님, 교육위원회에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거기 바로셀로나에 IOC(institut obert de catalunya) open high school 여기에 방문을 하셔서 발명 수학체험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IOC(institut obert de catalunya) open high school은 체육 관련 중점학교 아닙니까?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이것은 원격학교이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체험 학습 그것은 문화센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24일, 25일을 같이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 지금 가려고 하는 말씀하신 거기는 원격교육기관입니다.

◇ ○○○ **위원** IOC(institut obert de catalunya) open high school이 원격교육이라고요?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러면 저 위에 스페인의 깔라산즈 하이스쿨도 역시 원격교육입니까?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아닙니다.

◇ ○○○ **위원** 리스본 돔 디니스 학교도 그것도 역시...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그것은 중고등학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 ○○○ **위원** 검색해 보시면 온라인 중심학교로 나와 있는데...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기가 오픈 된...

◇ ○○○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원격학교이고,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산하에 방송 통신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분석해서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탐색을 할 예정입니다.

◇ ○○○ **위원** 그렇다면 현재 가시는 의원님들은 경북소속이니까 경북의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우리 경북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온라인 교육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예.

◇ ○○○ **위원** 이런 데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미리 체크를 해서 가신다면 상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해온, 물론 우리 방송통신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전에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체크를 해서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 경북에도 곳곳에 영재학교가 있으니까 우리 경북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사전에 체크를 꼭 한번 하셔서 가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사전 연수 등을 해서 저희 국내 정보하고, 가서 찾고자 하는 부분까지 비교·분석을 사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교육위원회 출장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요.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계획 보고드리면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앞에 농수산위원회를 하시면서 아마 공통으로 교육위원회에 적용되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 제안을 저희가 가기 전에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아마 성격이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각 지자체에서 매년 축제 내지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마다 대개 주제가 꼭 있어요, 보면.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행사에서 애기된 내용들이나 주제가 과연 그 다음 해당 지자체에 피드백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늘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데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하고나면 매년 굉장히 근사한 주제를 정하기는 하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한 가지 주제가 시정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바로 그 논의된 내용들이 지자체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단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을 여러 위원회에서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국가를 연수명목으로 나갔다 왔을 때에는 진짜 한 위원님이 하나의 주제라도 여기에서의 ‘조사, 조사’는 이번에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일보한 계획서라고 보고, 이 다음에는 각 의원님이 하나의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전문위원실에서 제공을 해주시고, 아니면 늘 도정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마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중점적으로 가서 조사할 내용들을… 그러면 나중

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위원님.

◇ ○○○ 위원 농수산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 자료에 보면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한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 ○○○ 위원 혹시 또 다른 보고서가 있는지요?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지난번 연말 심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컴퓨터 입력된 것하고 캐비닛 자료를 찾아봤는데 PPT밖에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통상 공문서 보존기간 여부를 떠나서 필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장기간 보관을 하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어쨌든 이게 워드프로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래서 혹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 ○○○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려운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 위원님께서 다녀와서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려운 제안이라고 그랬는데 방문을 가서 가지고 현지의 작은 언론사라도 그 지역의 언론사를 방문을 하면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기사라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의원들이 왔다갔다, 대한민국의.

그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반드시 그것을 캡처해서 보내줄 겁니다.

이 사례는 2018년도나 2017년도나 이때쯤이지 싶은데 런던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갔을 때 제가 초등학교 교사 때 가르쳤던 제자의 남편이 거기에 이민을 가서 언론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연결을 해서 안내도 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의원님들에 대한 기사, 경상북도에 대한 소개기사 이렇게 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런던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경상북도에서 의원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갔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걸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으나 크게 힘든 것도 아니니까 혹시 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교민들이 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는지, 조그마한 언론사겠지요, 그래도 보도되면 또 알려지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그냥 거기에 가서 알아가지고라도 인터넷 언론사나 작은 곳이라도 한번 인터뷰도 하고 해볼 수 있으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제안을 해서.

◇ **위원장** ○○○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지난번 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한 요구를 해서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저희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연수활동에 어떤 도움을 좀 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녀와서 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또 가기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충실한 자료집,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조례입법에 대한 역할들, 왜냐하면 대체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이 출장만큼은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낀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하는 유일한 그런 활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역할 분담을 이 다음번 심사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는 ‘조사, 조사, 조사’ 이런 것보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나가서 어떤 내용들을 보느냐, 또 어떤 내용들을 다녀와서 조례에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진일보된 그런 심사 자료 내지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련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부터는 심사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신 회의자료 16쪽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심사기준을 참고를 하시면서 두 위원회의 국외출장에 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심사의견서 작성)

◇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경상북도의회 2개 상임위원회의 공무출장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의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공무국외출장건은 출석위원 7명 중에 찬성이 7명을 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6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확인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 다음에 출장계획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 **간사**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아낌없는 조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